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73호 HYUNBULNEWS.COM 2026년 4월 8일(음력 2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조계종 총무원은 3월 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마당에서 화재 복구공사 마무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조계종

청사 복구 완료…"불교중흥 나아가자"

3월 31일 성료 기념행사
국제회의장 현판 제막도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3월 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마당에서 화재 발생 9개월 만에 복구공사 마무리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불교중흥을 향한 염원을 다졌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종회의원 스님, 총무원 부실장 및 종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지난해 6월 10일 종회가 열리던 중 연기가 솟아올랐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암담한 심정"이라며 "다행히 화재가 빠르게 발견됐고, 종회의원 스님들이 질서 있게 대피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스님은 이어 "복구된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지만, 원장으로서 덕이 부족했던 탓은 아닌지 늘 죄송한 마음"이라며 "종정 예하를 비롯한 본사 주지 스님들과 사부대중, 종도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준 덕분에 이 시점에 완공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미처 점검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살펴 총무원이 새롭게 태어났다"며 "앞으로 안전 점검에 더욱 유념하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지난해 고운사 화재에 이어 6월 총무원 화재까지 이어지며 약 10개월간 종무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종무원들이 묵묵히 역할을 다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우 스님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원만한 기념관 입주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108배를 했다. 김내영 기자

제주 4·3 불교 피해 규명 공식화 필요하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제주 4·3 사건 등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폐지가 공식화되는 가운데 당시 제주도 종교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불교계에 대한 공식적인 피해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9일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와 4·3 사건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정부 주도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 배상을 비롯한 피해 회복에 대한 국가 책임과 사건 가해자에 대한 책임도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

불교계가 제주 4·3 사건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당시 종교 피해 중 대부분이 불교계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회장 김용범, 이하 사업회)가 발간한 피해자료집 〈4·3과 제주불교〉에 따르면 당시 제주에 있던 80개소 사찰 중 56개 사찰이 방화로 소실됐다.

특히 스님 17명이 희생된 점은 막 태동하고 있던 제주불교계로서는 뼈아픈 손실이었다. 당시 제주불교를 대표한 승려인 이일선은 1947년 '3·1절 기념 투쟁 제주도위원회' 선정동원부에서 활동하고,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3인 의장단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정광사에서 예비검속돼 산지포구서 수장됐다.

李 "국가폭력 시효 폐지"
종교 피해 대부분이 불교
사찰 56곳 방화로 소실돼
스님 17명, 수장 및 총살
"공식적 진상 규명 있어야
피해 보상, 명예회복 가능"

표훈사 중향강원 강사로 활동했던 이세진 스님은 1948년부터 민중들과 함께 무장대로 활동했다. 무장대 지휘부였던 이덕구 등 15인과 관음사서 기거하며 활동했는데 군·경 토벌대에 잡혀 1949년 7월 산지 앞바다서 수장됐다. 화엄사 제주포교소 포교사로 제주 순회포교 활동을 전개했던 이성봉 스님은 1949년 10월 자신이 주석하던 금봉사로 피신 온 마을 주민들을 숨겨주다가 토벌대의 총에 희생됐다.

사업회는 "대규모 사찰 파괴와 주요 스님들의 희생으로 제주불교의 맥이 끊어졌고 한동안 제주도에서는 불교 활동이 불가능한 무불(無佛)시대가 이어졌다"면서 "불화, 불상 등도 소실돼 불교문화유산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주불교계의 노력으로 제주 4·3 사건 당시 사찰 및 스님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들이 이뤄지고 있고 자료집까지 발간됐지만, 공식화되지는 못했다.

김용범 사업회장은 "수년 전 제주4·3평화재단에서 추가 진상 보고서를 발간할 때 종교 피해 부분을 넣으려고 했으나 추가 조사 등을 이유로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공식적인 피해 조사와 진실 규명이 진행돼야지만 국가 차원의 사과를 비롯해 배·보상,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어 불교계 피해의 공식화는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관음사(주지 허운 스님)와 위성곤·김한규·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지난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주 4·3 과정에서 희생된 불교계 추념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도 배·보상과 추념 사업 관련 방안이 이야기됐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비상사태와 종교의 보호' 발제에서 "제주 4·3 당시 사찰 파괴는 이념적 갈등 과정에서 중산간지대라는 지정학적 이유로 군사적 필요에 입각해 발생한 파괴"라고 규정하며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불법행위이며 보상과 복원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닌 국가 행위"라고 봤다.

제주4·3특별법은 피해를 개인적 피해에 한정하고 있음을 지적한 이 교수는 "제주도 내의 부분적인 사회공동체인 불교계가 입은 피해도 독립적 항목으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특별법 제22조 공동체 회복에 대한 조치에 포함하기 적절한 사안이라고 보여진다. 제주시민사회와 제주불교계가 제주4·3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정부와 불교계 및 시민사회의 숙의를 거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고

4월 1일부터 구독료를 인상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4월 1일부터 월 구독료를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구독료 인상은 2002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1994년 창간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기치로 불교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왔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과 함께 신문 원자재 가격, 인쇄비, 우편발송료 등이 크게 올라 신문 제작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24년간 구독료 인상 없이 비용 절감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문 제작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현재의 구독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부득이하게 구독료 현실화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은 신문의 품격을 높이고 불교계 소식을 충실히 전하는 한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언론 포교사가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靈鷲叢林 通度寺
金剛戒壇
4. 21 (화) / 4. 23 (목)

세계문화유산 통도사는 신라 자장율사께서
부처님 금란가사와 진신사리를 봉안해 모신
금강계단을 수계 증명단으로 삼고 계율 전수를 통해
부처님 정법의 맥을 이어 온 계율근본도량입니다.
자장율사의 계율정신을 되새기고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잇고자
병오년 금강계단 보살계 산림법회를 봉행하오니
널리 동참하시어 세세생생의 불연을 맺는
수승한 인연공덕 지으소서.

불성의 자리에서 수계 공동체를 이루는
菩薩戒山林
보살계산림

입재 2026년 4월 21일 (음. 3.5) 화요일
회향 2026년 4월 23일 (음. 3.7) 목요일



동참금 : 5만원
접수처 : 화엄전_ 전화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차량안내 : 부산 온천장역 지하철 1번 출구 앞 오전 8시 ~ 9시

불지종가 ·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